



## 으랏~ 차차! 한겨울 차한잔 기운난다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파고드는 겨울. 따뜻한 차 한 잔이 절로 생각난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차 자리는 찾아지고, 불에 갈무리해둔 차는 서서히 바닥을 드러낸다. '차 춘궁기(春窮期)'에도 차를 마음껏 즐길 수 없을까?

차 보관이 쉽지 않았던 시절에는 단차(團茶) 등의 덩이차나 겨울 찻잎을 따서 만든 '동차(冬茶)'로 겨울을 넘겼다. 한겨울에도 차를 즐기곤 했던 선조들의 차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전남 강진이나 곡성, 경남 하동 등지의 민가에서 상비약으로 준비해두었던 단차는 대표적인 겨울차다. 전차(錢茶)나 떡차(餅茶)로도 불리는 단차는 4~5월에 채취한 찻잎을 시루나 가마에 쪄 절구에 넣고 찧은 후 다식판 같은 틀로 모양을 만들어 햇볕에 말린 것을 말한다. 보통 단차는 곱게 가루를 내어 마시거나 끓는 물에 넣어 맑은 다탕(茶湯)으로 마신다. 집 처마에 매달아 1년 정도 묵힌 단차는 겨울이면 그 진가를 발휘한다. 겨울철 마실거리로서뿐만 아니라 감기에 걸렸을 때나 여행 시에 비상약으로 쓰이는 약재로서도 손색이 없다.

단차는 만들어 팔리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보관이 쉽고 끓여 마시기 편리해 조선시대에 즐겨 마셨다. 근대에 들어 열차(葉茶)문화가 발달하면서 단차의 전통이 끊기는 듯 했으나, 최근 차 풍호화나 제다업체를 중심으로 단차를 만들어 마시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흔히 일본 고유의 차로 알고 있는 가루차(末茶)는 삼국시대부터 우리 선조들이 즐겨 마신 전통 차다. 신라인들이 가루차를 즐겨 마셨고, 고려시

대 때에는 떡차를 가루로 내어 마시기도 했다. 찻잎을 통째로 먹는 가루차는 찻잎의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 때문에 쉽게 활기를 잃기 쉬운 겨울철 비타민C를 보충하는데 제격이다.

겨울에도 잎차를 즐기고 싶은 차인들의 바람은 '동차'의 전통을 낳았다. 동차를 만들어 마셨다는 문헌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차를 마시고



찻잎을 찌서 찧은 후 동그랗게 빚어 말린 단차(사진 왼쪽)와 찻잎의 영양을 모두 섭취할 수 있는 가루차는 겨울철 차인들의 '차갈증'을 채워준다.

가마솥에 두고 손바닥으로 비벼 맛을 낸 '동설차'를 재현해내기도 했다.

삼애다원의 '춘설차'도 동차의 일종이다. 광주 증심사 근처 5만여 평의 차밭이 바로 춘설차의 생산지. 해발 700m 위에 만들어진 이 차밭은 1910년경 일본인이 개량해 만든 것을 해방 후 의재 허백련 화백이 인수해 차밭으로 일군 것이다. '춘설



### 단차·동차 등 지친 몸에 자연 영양소 전달 가능한 뜨겁게, 속 냉한 사람 발효차 마셔야

자 하는 이들이 겨울철 찻잎을 채취해 차를 만들어 올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동차란 한겨울 눈 덮인 숲에서 자란 찻잎으로 만든 차를 말한다. 양력 10~11월에 따낸 차는 봄철에 돌아오는 새순에 비해 잎이 짙고 맛과 향이 떨어지지만 싱싱한 자연의 기운을 전해준다는 특징이 있다. 근래에는 남도 야생차지기(www.sanjillo.co.kr) 회원들이 눈 속에서 따 찻잎을

차'는 봄의 속에 갇혀 돌아온 어린 찻잎의 영롱한 빛깔에서 영감을 얻어 지은 이름으로, 눈이 녹기 전에 돌아온 차의 어린 잎을 채취해 만든 차다.

하지만 아무리 차의 효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무턱대고 마신다면 득(毒)이 될 수 있다. <본초강목> 32과(果)에는 "차는 맛이 쓰고 달며 성질은 약간 차고 독이 없다"고 했다. 또한 <신농본초경>은 "위가 허하고 피가 약한 자가 차를 오래 마시



남도 야생차지기 회원들이 눈밭에서 찻잎을 따고 있다. 사진제공=도서출판 김영사

면 정신을 상하게 되고 아리게 된다"고 적고 있다. 때문에 겨울에 차를 마실 때는 가능한 뜨겁게 마시고, 몸이 차거나 위가 약한 사람은 우롱차와 청차, 백차, 홍차 등의 발효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

### 정다산 유적지 개발된다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차인이었던 다산 정약용(1762~1836)의 유배지인 전남 강진군 '정다산 유적지(사적 제 107호)'가 본격적으로 개발된다.

지난달 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마친 강진군(군수 황주홍)은 사업비 1,325억원을 들여 5만평규모의 '다산역사테마파크'를 2010년까지 조성한다고 1월 10일 밝혔다.

군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다산이 유배 당시 처음 기거했던 동문생과 주막, 2년 동안 제자를 가르쳤던 이학래가(家), <목민심서> 등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한 다산초당, 초당에서 백련사까지 이어지는 800m의 오솔길 등을 정비하게 된다. 또한 올해 준공되는 정다산 유적지 교육관과 수련원, 현재의 전시관을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다산은 강진군에서의 유배생활 중 초의선사와 해장 선사 등을 통해 차와 인연을 맺고 차와 관련된 시와 글 40여 편을 남겼다. <동다기>라는 다서를 썼다고 하나 현재 전하지 않는다.

### ■氣와 맛으로 보는 한·중·일 다기전

한중일 삼국의 다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氣)와 맛으로 보는 한·중·일 다기전'이 2월 2일부터 8일까지 한국 공예문화진흥원 별관 2층에서 열린다. 전시를 주최하는 코리아 미라클 아트(www.miracleart.co.kr)는 "기운이 뛰어 나고 차와 공합이 맞아 맛을 잘 살려내는 다기를 엄선했다"고 밝혔다. 전시회에서는 다원과 자사호, 찻잔, 주석차통, 다실에 걸 수 있는 민화와 불화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02)733-9040

### ■동산불교대학 다도학과 신입생 모집

'다도 포교사' 양성을 위해 설립된 동산불교대학 불교 다도학과가 2005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기본과정 3년과 지도자과정 2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은 차의 역사와 한중일의 차문화 강의, 다도고전 강독, 제다실습 등으로 이루어진다. 입학식은 2월 5일, 개강은 3월 8일이다. (02)732-1206



### 궁중 다방 설치, 차 발전 도자문화에 영향

방(茶房)이라는 부서를 두어 전담관원을 정하고 관장케 했다. 중국도 황실을 중심으로 연고차 시대가 열리므로 공다법(貢茶法)과 전매제도가 생기고 수출이 성행했으니 특히 다마(茶馬)무역은 후대까지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일본도 이 시기에는 실제 왕가가 승가에서 일부 차생활이 있었다는 기록들이 전한다.

① 도자의 역사는 바로 차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송대의 오와 월의 요지가 가까운 호남의 강진을 중심으로 우리의

청자 생산이 궤도에 오른다. ② 임금이 차를 맛볼에 직접 가는 것을 보고 최승노가 "다방이라는 전담기구가 있는데 선대부터 왕이 직접 맛볼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간했다. ③ 성종이 포(布) 천필, 쌀 삼백석, 차 이백각, 향 20근을 내렸다. ④ 성종이 애도하고 다른 물품과 함께 뇌원차 이백각, 대차 열근을 내렸다. ⑤ 차는 귀한 것으로 취급되었으나 민간에서도 많이 마셨다. ⑥ 국가에서 부의품으로 차를 내리고 예식에 차를 사용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비색 청자의 다기가 생산된 것으로 차

문화의 깊이를 알 수 있다.

⑦ 공신 서희의 장례에 뇌원차 이백각, 대차 십근을 내렸다.

⑧ 송의 건국은 중국 차문화를 절정기에 이르게 한다. 가장 기교적인 연고차 시대를 열고, 차에서 생기는 이득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⑨ 오숙(947~1002): 송대 사람. 평소 차를 아주 좋아해서 <다부(茶賦)>를 남겼다.

왕유청(954~1001): 북송의 문인으로 차를 즐겨 '은사봉차(恩賜龍鳳茶)'라는 작품을 남겼다.

주옥(朱燾): 북송의 문인으로 <평주 가담(萍州可談)> 속에 차 얘기가 많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 시대별 연표

한 국	중 국	일 본
952 일본 장막사에 보물 33종을 보냄	960 송의 건국(조공원) ⑥	951 공야상인(空也上人)이 차를 나누어 줌
959 중국과 무역 중대	연고차 시대	954 천태종의 선희(禪暉)가 어머니 영전에 차를 올림 <부상약기>
⑥ 청자공예가 번성하기 시작 ①	공다법	960 다도구(茶道具)라는 어휘가 나온(인화사 어음실록)
982 궁중예를 위해 왕이 차를 맛볼에 갈다 ②	차의 전매제	970 전다(煎茶)를 금하다(양원)
천추절(千秋節)에 다례를 행하다	다미무역	980 조다사(遣茶使)라는 관직
983 삼성 육조 삼사(三省 六曹 三寺) 설정		
원구(圓丘)에서 기제를 지냄	송대	
986 목(牧)에 '권농교서'를 내림	⑧ 오숙, 왕유청, 주옥 등의 활동 ⑨	
987 최지몽의 죽음 ③	⑩ 오숙, 왕유청, 주옥 등의 활동 ⑨	
989 최승노의 죽음 ④	⑩ 차가 부의(轉輸)품으로 쓰임	
80세 이상 노인에게 차를 내림 ⑤	⑩ 차겨루기에 관한 기록 '투다기(鬪茶歌)'	
993 비색청자의 등장 ⑥	992 상평창(常平倉) 설치	
⑩ 차가 부의(轉輸)품으로 쓰임		
⑩ 궁중 전다(煎茶)가 자주 행해짐		
995 내시(內侍)관원 조정		
998 서희 사망 ⑦		

차생활 전문지 월간 「다도」



### 차(茶)를 좋아하신다구요?

차가 궁금하시다구요? 차에 가까이 계시다구요? 그럼 매달, 월간 「다도(茶道)」 한 권쯤은 보셔야지요. 차생활 전문지 월간 「다도」에는 차 한 잔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세계의 차문화, 다도구의 미학, 차생활 속의 감동 에세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도를 접하는 순간, 일상은 한층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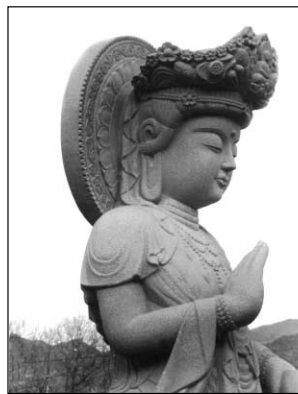
권당 가격 6,500원 | 1년 정기구독 65,000원 문의 : 02)722-7777

###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 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